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소식

제53호

2013 + JUNE
제262회 임시회

본 회의
의정포커스
의원논단
5분발언
주요안건처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모임
포토의정
의회사무처 소식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당신의 바다

언제나 내 곁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해
만물을 아우르는 바다가 되고 싶습니다
때때로 지평선을 치닫는 만선의 기쁨으로
때로는 답답한 가슴을 삭혀 내리는 담즙으로
갯바람의 치마폭을 들추며
시름없는 이야기를 빼곡하게 조각하고 있어요
뼈마디에 승승 구멍이 뚫렸다고
골다공증이라 단언하지 마세요
위대한 만물상으로 하늘 아래 우뚝 서기까지
형용할 수 없도록 아프고 시린 세상의 잔재물을
조각품 속에 봉인하고
빛의 손길이 비껴가는 바위의 심장에
인내와 자비의 씨앗을 심고 영롱한 희망으로 어우러진
기쁨의 꽃을 활짝 피우고자 합니다
마음껏 소리쳐 봐요
다 받아 줄게요
티끌만한 불평 불만도 하얀 포말의 꼬말 속에
한잔의 와인처럼 향긋하게 발효 시키겠어요
늘 칠랑이는 행복을 노래하는 바다이고 싶습니다.

- 오 형 룩



June 2013 제53호

제262회 임시회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 소식

CONTENTS

02 제262회 임시회 개회사



20 상임위원회



03 본 회의

04 의정포커스

10 의원논단

14 5분발언

18 주요안건처리

32 특별위원회

34 연구모임

38 포토의정

40 의회사무처 소식

42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궁금했어요



| 발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 전화 | 041)635-5102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편집 | 총무담당관실 기획홍보담당

| 팩스 | 041)635-5009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 하
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
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5월 중순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점
점을 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
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서민 경제
의 어려움,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
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굳
건하게 힘을 하나로 모아 210만 도민들의 삶에 희망과 행
복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들과 약속했던 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더 발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민
들의 행복과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
다. 이는 수도권 기업이전이 활발한 우리 지역뿐만 아니
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
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예산 17조
3,000 억원이 지난주 7일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한 우리도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에서는 모내
기, 발작물 파종 등으로 농사준비가 한창입니다. 적극적
인 농촌 일손돕기 전개와 내실있는 영농시책 추진으로 금
년에도 풍년 농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국회에서 “유류사고지원 특별법 개정안”
이 통과되었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하루빨리 원만한 보상이 완료되고 지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련된 각종 조례안
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사업현장을 철저히
점검하는 회기가 되고, 210만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
겨주는 알찬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210만 도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
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1 . 충청남도의회 의장 이 준 우

“충남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운영”

3농혁신 등 각종 현안추진 보고 및 조례안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10 일동안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 주요 내용은 도의회 연간 회의 일수가 지금까지 총 120일 이내였던 것을 10일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과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과 고남중 의원 외 3 인이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안, 명성철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지원 촉구 결의안 2건을 처리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 조이환 의원(서천)이 세계흐름을 통해 본 충남농업 발전방안, 이광열 의원(아산)이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 박찬중 의원(금산)이 시·군 교육장 임명에 관한 문제점, 이도규 의원(서산)이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였다. 5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처원 의원(천안)이 천안시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이은철 의원(교육)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맹

정호 의원(서산)이 유류피해 문제해결 촉구, 김지철 의원(교육)이 교복 공동구매, 김용필 의원(비례)이 내포신도시와 수덕사 연결도로개설, 장기승 의원(아산)이 사회 복지직 공무원 처우개선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도정의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농수산경제위원회는 16일 농수산국으로부터 '3농혁신 추진상황'과 경제통상실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청취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이전 계획'과 '제31회 전국연극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201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였다.

도정의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점검도 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장을, 농경위는 서천화력발전소와 공주시 의당면에 소재한 공주통합 등 현지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확인하였다.



예산군 소재 구, 충남방직 폐공장 해결된다

— 글로벌 자동차 부품공장 추진, 김용필 도의원 앞장 —



진했던 예산읍 신례원에 소재한 구 충남방직 폐공장의 처리문제가 결실을 맺게 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부지가 공장용지로 다시 활용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 고용창

예산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용필 도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에 따르면 '예산군은 이 구 충남방직 폐공장 일부 철거 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는 것. 또한 '건축물 일부 철거는 지난 5월 14일부터 시작되어 6월 30일까지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9대 도의원 임기를 시작하면서 안희정 지사에게 4차례의 도정질문과 5분 발언등을 통하여 충남도가 예산군 도심지내에 방치되어 있는 구 충

남방직 폐공장 해결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으며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 이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여 왔다.

김용필 의원은 「예산읍 신례원 주민들은 이제 시작하는 구 충남방직의 건축물 일부 철거가 매우 적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SG그룹측에 힘을 보태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3 건강가정 정책포럼' 참석

김장옥 의원(비례)은 5월 28일,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열린 '2013 건강가정 정책포럼'에 참석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서 가족정책의 방향과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여성 정치인이 기대하는 20대 생애설계”란 주제로 특강

김장옥 의원(비례)은 5월 20일, 천안 나사렛대학교에서 “여성 정치인이 기대하는 20대 생애설계”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인 대학생활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미래에 대한 설계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첫째,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고 둘째,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벗을 사귀어야 하고 셋째, 다사로운 동반자를 두고 넷째,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생 3막 준비를 위해서 “20대에 열심히 공부하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공부해라”는 내용을 강조했다.

금산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지원활동 참석



김석곤 의원(금산)은 지난 6.2일(일) 금산고등학교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금산로터리 클럽과 연계하여 금산고 「인터랙트」 동아리 활동 컨설팅 회의에 참석하였다. 인터랙트는 금산로타

리 클럽의 지원으로 매월 두 차례씩 실시하는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자율동아리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날 김의원은 “청소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이웃사랑과 금산 지역사랑에 앞장서는 청소년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접 고용 조례 제정하라”

- 고용노동부, 행정법원,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 -
- 김지철 의원, “학교비정규직의 직접 고용은 전국적 대세” -

김지철 의원(교육 1)은 학년말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 형태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직접 고용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행정법원도 교육감이 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판단하는 등 직접 고용은 대세”라고 말하고 시·도교육청의 직고용 조례 제정 및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구분	교육청	비고
기 실시	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교육감 발의(광주 제외)
발의 중	서울, 울산, (경남)	경남, 논의 중
발의 준비 중	인천,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제주	
준비 없음	충남, 세종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 체결한 강원교육청은 직접 고용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

원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사업비에서 지급해왔던 임금을 인건비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 심사와 호봉제 실시에 필요한 404억원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예결위 등 소관 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김 의원은, “충남 교육공동체의 약 1/4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이 없으면 하루도 학교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그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막중함에도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는 매우 차별적 노동 현실”이라며, “1년차나 10년차의 일부 수당을 제외하면 임금이 동일한, 올해 처음 월급이 100만원을 조금 넘는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함께 사는 세상, 민주시민 노동교육을 구현”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주문했다.

모래놀이치료학회와 간담회 가져



김지철 의원(교육 1)은 지난 2013.5.4.(토) 한국모래놀이치료연구소 천안지부 창립식에 참석하여 김보애 회장을 비롯한 광주, 서울지 회장 등의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과 광주의 중·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모래놀이 심리 치료를 통한 1대1 상담 및 학교폭력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천안지역 초등학교에서의 적용 방안에 관하여 토의를 했다.

도내 학생수영장 매년 적자 운영, 이용객도 매년 줄어



충남 교육청 산하 학생수영장 운영이 적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이용객들의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민주)과 교육청에 따르면 2012년 교육청 산하 7개 학생 수영장의 운영 결과 450,348천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1년 275,460천원보다 174,888천원의 적자가 늘어났다.

서천학생수영장의 경우 55,477천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2011년 5,567천원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이용객의 수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이용객 수는 474천명으로 2011년 510천명보다 무려 36천명이 감소했다. 특히 부여학생수영장의 경우 지난해 이용객 수는 53,601명으로 2011년도 99,057명에 비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456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맹정호 의원은 “부실한 학생수영장 운영으로 교육재정을 축내고 있

고 학생들과 도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서산의 한 주부는 “수영장 시설이 낡고 서비스 수준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보다 낮아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충남교육청 산하에는 공주 서산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등 7개의 학생수영장이 운영 중에 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위 명성철 위원장,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에 유류특위사업관련 국비지원 촉구”



5. 13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안유류사고 관련 피해배상 현황 점검 및 피해민 의견청취를 위해 보령을 방문했다. 최근 서해안유류사고 관련 특별법이 국회 통과한 가운데 유류사고 피해민 연합회원들은 관련 시행령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유

트호 특위 김태홍 의원도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보령)은 “유류사고 발생 후 6년동안 4천여명의 피해민들이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

류사고지원본부에서 마련한 피해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피해민대표들의 의견을 관심있게 경청했다.

국회 허베이스피리

일내에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류피해관련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대하여 윤장관은 “유류사고 피해민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각종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민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덕빈 충남도의회 부의장, 건강보험공단 일일명예지사장 체험



충남도의회 송덕빈 부의장은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논산지사(지사장 소인섭)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업무에 대한 이해와 민원사항을 둘러 보는 등 지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덕빈 부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로 부터 공단의 역할과 기능, 정

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세부내용과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과 2013년도에 시행하는 보장성 확대 등 주요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본인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지사를 방문한 민원들은 일일명예지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 부의장에게 노인의 건강증진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급여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송 부의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현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에 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하겠다”고 일일체험 소감을 밝혔다.

홍성 석택리 유적지 박물관 건립 촉구”

— 이종화 충남도의원,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유적지 발굴에 더욱 힘써야 —



입도로 공사구역에서 발견된 “석택리 유적지역에 대한 발굴과 보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번 발견된 유적지는 원삼국시대 환호취락으로, 마한(馬韓)에

이종화 의원(홍성)은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조성사업 예산·수역사 나들목에서 내포신도시 진

서 백제로의 전환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사적, 학술적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유적 구간은 터널공사 계획으로 일부 수정 진행 중이며, 문화재청의 입장인 ‘보존원칙’이라는 원론만 밝혔을 뿐 후속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진입도로 공사 공기에 쫓겨 조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도는 문화재청의 의견과 학계의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서둘러 정부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발굴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발굴된 유물의 보존, 전시를 위한 내포박물관 건립을 제언했다.

충남도의회 이도규 의원, 서산의료원 명예원장 역할 수행



충청남도서산의료원(원장 신호철)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원운영상황 및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일일 명예원장 제도를 시행했다. 그 첫 시작으로 지난 29일에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이도규 의원을 일일 명예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이도규 명예원장은 9시에 출근하여 주말 응급실 진료환자 현황에 대한 결재업무를 시작으로 원장직을 대행했다.

이도규 명예원장은 외래와 병동을 순회하며, 환자들에게 쾌차를 비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직원들에게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노인전문병원 병동에 방문하여 직접 환자들의 식사를 도와드리는 것으로 오전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간부회의를 주재하여 병원 활동상황과 병원 간부들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원무팀, 관리팀, 상례원 등 각 부서를 돌아 본 뒤 일일 명예의료원장 체험에 대한 소감을 끝으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지었다.

이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 후 간부회의를 주재하여 병원 활동상황과 병원 간부들로부터 주요 업무

에 대해 보고 받고 원무팀, 관리팀, 상례원 등 각 부서를 돌아 본 뒤 일일 명예의료원장 체험에 대한 소감을 끝으로 모든 업무를 마무리지었다.

이도규 명예원장은 "직접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의료원의 역할이 밖에서 생각했을 때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서산의료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신호철 서산의료원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번 일일 명예원장 체험을 시작으로 점차 많은 지역주민이 직접 의료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책토론회 성료

— 지방분권 활성화,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와 의회 인사권 독립 방안 제시—
— 충남도의회 유병국 운영위원장, 김용필·윤미숙 의원 참석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창섭,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는 4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10여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100여명의 광역의원 및 지방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

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이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 스스로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양영철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 김성호 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봉 세

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교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이 토론했다.

제2세션은 안영훈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

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자로 는 정재환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금산, 구레터널 붕괴 관련 적극 대응 촉구”

- 충남도 건설소방위원회 터널 대책보고 받고 관계자 질타 -
- 공기지연, 사업비 증가, 소송 등 대비 철저한 조치 주문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 위원들은 5월 6일 지방도 제635호 확포장공사(금산 복수-대전) 구간 중 구레터널 붕괴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중

합건설사업소 관계자로부터 붕괴 원인 분석과 향후 공사 재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를 받은 건설소방위원회들은 건설기술심의위원 자문 결과 광

의 자연재해로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에 있어 향후 붕괴에 따른 증가되는 사업비 소송 등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다.

앞으로 공기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에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소송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충청남도가 패소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내포신도시에 전통 한옥을 짓자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한때 우리 것에 대한 예찬이 차고 넘칠 때가 있었다. '우리'라는 말은 대중가요 '신토불이'와 판소리계 거장 고(故) 박동진 명창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토속적인 의미처럼 우리의 전통과 도맥을 같이 한다. '신토불이'는 농산물, 공산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도 엄연히 존재한다.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주거공간의 신토불이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외래 주거양식이 주위에 너무 넓게 자리를 잡아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서 그저 잊고 살아왔을 뿐이다. 한옥은 지역에 따라, 신분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해 왔다. 양반가옥인 기와집, 서민가옥인 초가집 그리고 산속의 너와집, 섬지역의 투막집 등 신분과 기후나 재료에 따라 특색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옥이 196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주거양식의 근간이 되었으나,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급속히 쇠락하게 되어 현재는 기와집으로만 알려지고 있으며, 초가집과 너와집 등은 민속촌에 서나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현대인들의 관심사인 친환경과 참살이, 힐링(치유)의 여파로 전통 주거양식이자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의 한옥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한옥건축 산업화 추진을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한(韓)스타일 세계화 기반 조성사업'도 한옥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 2008년 공주시와 2009년 부여군만이 정부로부터 한옥 건축지원 예산을 받았으며 나머지 시·군에서는 한옥 활성화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한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한

옥 활성화를 위한 '한옥건축지원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옥의 세계화는 지금이 적기이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문화홍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 문화예술인의 44%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문화로 고궁 등 전통문화를 택했다고 한다. K팝과 드라마에서 불기 시작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한국의 의식주 일상으로 저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옥은 문화재나 관광의 대상을 넘어 생활과 밀접한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전통 멋과 지혜에 현대적 편리함이 더해지면서 문화원형으로서의 가치가 현대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친환경, 참살이 선호 추세로 인해 한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에 새로 짓는 공공건물을 한옥으로 건축하여 도민과 일반인이 일상에서 한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한옥 숙박시설, 도서관, 유치원 등 주택 외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옥의 장점을 부각시켜 한옥의 우수성과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내포신도시 도시특성화 차원에서도 한옥의 산업화 문제는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한옥 산업화 성공 사례 등을 분석해 한옥 활성화 사업의 방향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공공건물에 전통의 한옥 바람이 분다. 우리 사회가 친환경, 참살이 선호 추세로 인해 한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충남도청이 이전한 예산과 홍성지역에 새로 지어야 할 공공건물을 한옥으로 건축하여 도민과 일반인이 일상에서 한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옥 숙박시설, 도서관, 유치원 등 주택 외의 다양한 분야도 한옥의 장점을 부각시켜 한옥의 우수성을 알려야 한다.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에 도시특성화 차원에서도 한옥의 산업화 문제는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한옥 산업화 성공 사례 등을 분석해 한옥 활성화 사업의 방향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힘을내자!



장기승
충청남도의회 의원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청소년은 어른의 얼굴이다"라는 말이 있다. 어른들의 삶이 청소년 미래의 모습이거늘 요즈음 어른들 눈에는 청소년이 없다. 학교폭력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피해 학부모의 입장에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는 학교와 정부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학교나 정부에서는 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은 지 오래지만 쉽게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충남의 학교폭력 발생은 2009년 114건, 2010년 153건, 2011년 1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심야학습에 지쳐가고 있다. 밤 12시에 집에오는 학생들을 일컬어 "신데렐라 학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 활동을 하고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에 이어 12시까지 학원교습을 받은 후 귀가한다. 심야학습을 해야 성적에 향상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뒤쳐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집이 아닌 학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과 성적비관이 자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충남의 청소년 자살은 2009년 16명, 2010년 10명, 2011년 18명으로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성적과 진학문제가 54%, 가정불화 13%, 외로움 11%, 기타 22%로 성적과 진학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충청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몸을 담고 있는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성적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개인의 특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의 양이 성적을 결정짓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집중력의 차이이다. 지쳐있는 청소년들을 쉬게하자.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휴식시간을 갖자. 영화관도 좋고 미술관이나 예술의 전당도 괜찮을 듯 하다. 때로는 영화속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때로는 예술이 주는 여유에 흠뻑 취해보면 어떨까? 얼마전 영화 "댄싱 퀸"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고 "부러진 화살"을 보면서 정의와 용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충남교향악단이 순화곡연을 할때면 지역 문화회관에서 자주 관람을 한다. 음악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선율에 여백을 찾는다. 잠깐의 휴식은 몸과 마음을 충전해 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지닌해 "어느 완벽한 샐러리 맨의 죽음"이 주위를 안타깝게 하였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촉망을 받던 30대 젊은 직장인이 학생시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완벽주의자로 정평이 났지만 MBA 출신 동료들보다 연봉을 적게 받는 것에 화의를 느껴 밤늦도록 일과 공부를 병행하였지만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 성적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청소년들이 힘을 내자!



백제로 오세요!



윤석우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주와 부여에 가면 사공을 뛰어넘어 1,400백년 전 백제의 역사와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공주에는 백제 구이신왕이 건립한 갑사와 무왕이 건립한 마곡사가 세월을 머금은 채 천년고찰로 자리 잡고 있다. 도굴 피해를 전혀 당하지 않은 제25대 무령왕릉에서는 왕과 비의 장식 등 4,600여점의 유물이 발견되어 17건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사적 12호 공산성은 문주왕 시절 한성에서 도읍을 옮겨 64년간 공주를 지킨 고대성곽으로 유유히 흐르는 금강과 시내의 전경이 어울어져 절경을 이룬다.

부여에는 낙화암과 고란사, 정림사지 5층석탑, 무왕이 인공으로 만든 연못 궁남지가 있으며 궁과 농사를 재현한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2010년 개장이후 2년 반 만에 34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어전회와 어가행렬 등 상설공연이 펼쳐져 찾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5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백제문화제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2010 세계 대백제전”에서 보여준 기마행렬과 황산벌 전투 재현 등으로 인지도가 높아져 꾸준히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올해는 기마행렬, 웅진성 퍼레이드, 수문병 교대식, 백제등불 향연, 계백장군 출정식, 수상카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백제는 금강과 서해의 바닷길을 이용해 동남아를 무대로 해상왕국을 건설하였으며 일본 고대 아스카문화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 지정문화재 수만 보아도 공주와 부여에 372점으로 경주 297점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

정부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주·부여·익산·경주를 보존 육성하기 위하여「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고도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와 사업지연

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도시 노후화, 주민의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도 근거법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부가 바뀔 때 마다 표류하고 있다. 고도보존사업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조속히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도(古都)는 역사와 정신문화의 상징이다. 고도가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공간계획으로 관리할 경우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문화적 우수성과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기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57개국 962점에 달한다. 국내에도 수도권에 조선왕릉, 종묘, 창덕궁, 수원화성이 있고 영남권에 석굴암과 불국사를 포함한 경주 역사유적지구, 안동의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있으며 호남권에 고창·화순 고인돌의 문화유산이 있고 제주도에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자연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찬란한 역사유적을 지니고 있는 백제의 고도 공주와 부여에는 아직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없다.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필요하다.



어버이날을 보내며 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소고



유기복
충청남도의회 의원

금년에도 어버이날을 맞이했다. 충남도내 곳곳에서 부모님의 가없는 사랑을 기리고 노인을 공경하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그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에 감사했다. 하지만 이 기념일에도 가슴 한 켠에 꽃 한 송이 달지 못하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자식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움을 느꼈다. 가족의 해체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우리사회의 쓸쓸한 단면인 것이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노령연금이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생활보조금, 적게나마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은 치솟는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 노인들은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노인가구의 순자산이 감소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증가해 일자리 확대 없이는 편안한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2년 30.5%에서 2012년은 30.1%로 유지되고 있으나 실업

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중 충청도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수는 43만 명이며, 이중 49.2%인 21만 명이 취업을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충남도에도 50.8%나 된다.(충남통계연보 2012.)

핵가족화의 진전 속에 우리 사회의 효(孝)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붕괴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또한 충청남도의 고령화 속도는 무척 빠르다. 따라서 가족문제와 함께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버이날이 의례적 기념일에 그칠 게 아니라, 이 땅의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5분발언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3. 5. 14)



신재생에너지 활용 유기농산물 생산 시급



조이환 의원 | 서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유기농업 전환으로 충남 농정을 살려야 한다. 네덜란드 '아그리포트 파프리카 유리온실 농장'은 농장내 LNG열병합발전기를 설치·사용하고, 전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열은 지하수를 데워 유리온실 난방에 사용한다. 이러한 유리온실 재배방식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자연재해 예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충남 농업의 발전 방안이 된다. 충남도는 이점을 헤아려 도내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이 희망을 갖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도민들 공교육 받을 권리 보장해야



이광열 의원 | 아산 최근 충남도내 초등학교가 점점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추세다. 현재 충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지침에 따라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까지 통폐합추진대상 학교는 81개교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켜줘야 한다. 일각에는 학교의 최소한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 존폐에 대하여 효율성과 경제적 시장논리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어린이는 어디에 살든 최선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장학사 위주의 충남 교육 현실 탈피



박찬중 의원 | 금산 충남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우리 교육계를 충격과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처럼 장학사 위주의 승진과 교육장 임명은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를 재발시킬 수 있다. 2013년 현재 14개 교육장 중 12명은 장학사 출신이다. 장학사 중심의 교육행정은 돈으로라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려는 유혹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제는 행정전문가가 아닌 교육전문가에게 교육의 책임을 맡겨 굼아터진 교육계의 혁신을 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은 죽어간다.



이도규 의원 | 서산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특히, 충남 도내 중부대와 청운대가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함으로써 충남의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농촌에 인구 공동화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지방재정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의 열악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비수도권도 공동대응에 나서야만 한다.

학교폭력 대책마련 무엇이 문제인가



김종문 의원 | 천안 학교폭력이 우리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드러났다. 최근 천안의 모중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이 있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으로 중학교 여학생이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3주째 등교를 못하고 있다. 학교는 책임 회피와 사건 축소에 몰두한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건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탓이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폭력 발생이 두배 이상 증가 했지만, 선생님들은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이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5분발언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 5. 23)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절실



권처원 의원 | 천안 천안시 성환읍 울금 도로 교통량 증폭에 따른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교통량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일 9,140대에서 50%이상 증가한 2만여대로 교통량이 증가했다. 그러나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연돼 기업의 물류비용 증가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검토하고 있다는 미온적인 답변이다. 70호선 확·포장사업이 우선 추진되도록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복식학급 통폐합 필요



이은철 의원 | 교육 충남도내 복식학급을 운영중인 초등학교 39개교에 대해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본질 논리에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 교단에서 복식학급을 맡아 본 경험을 볼 때, 한 교실에서 한명의 교사가 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소규모 학교는 합창같은 음악 활동과 운동회 등도 열지 못하고 친구들과 간 상호작용도 어렵다. 학교 급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복식수업 행태를 개선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유류피해 국비지원촉구



맹정호 의원 | 서산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유류사고 피해보상과 관련 국회에서 유류피해 특위 구성 및 유류피해 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도 20개 사업에 598억원을 투자해 수산업 기반구축 등 '서해안살리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제18회 바다의 날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피해지역 주민을 위로하고 행정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5 Minutes Speech

교복가격 낮추도록 대책 마련 필요



김지철 의원 | 교육 2011년 충남의 교복(동복) 가격은 전국 2위, 하복은 1위로 전국 최고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이 많은 충남의 교복가격이 대도시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 올해 하복 가격이 전국 평균 매매 예상가격인 7만 7678원 이하로 인하되지 않으면 하복 착용을 유보해야 한다. 또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신입생의 교복착용 시기를 입학이 끝난 3월말 이후로 늦춰야 한다. 이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면 가격이 인하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예산군 소외 용납 못해



김용필 의원 | 비례 내포신도시 건설에서 홍성군에만 롯데아파트가 885세대가 들어섰고 극동아파트 983세대, 효성아파트 915세대가 들어선다. 예산지역에 착공될 줄 알았던 LH고층아파트도 홍성에 착공된다. 이것은 예산·홍성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 충남도가 아파트는 홍성에, 모델하우스는 예산에 하는 방식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둘러리식 활동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예산군민을 위한다면 임시도로를 내어 도청 공직자가 예산 읍내에 경제활동을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공무원 여건개선 시급



장기승 의원 | 아산 15일 도내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사망했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기준 15개 시·군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원은 793명으로 현원 757명 대비 36명의 결원이 발생했고 1명당 675명의 대상자를 관리한다. OECD 국가(300명)보다 많은 수치다. 근본적 개선을 위해 탄력적 인력충원을 위한 총액인건비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사무분장이 필요하다. 또 인력조정을 위한 조직진단, 근무여건 개선 등 땀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262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 현황

개정 조례안

1.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유병국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수를 50명 이내로 확대
각 상임위원장이 8명 이내로 추천, 분과위원회는 상임
위원장이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등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354호)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직급을 지방서기관
에서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개방형직위)으로 조정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364호)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을 현행 3개시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에서 4개시도(충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조정
• 소방관서 증설(태안소방서, 천안·청당·공주·계룡
4개 안전센터, 논산·계룡 구조구급센터, 당진소방서 소
속 소방정대)

4.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유가족상담 및 지원, 자살예방센터의
위탁절차 및 방법 등 근거마련

5.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의원 | 권처원, 박문화, 유병기 의원 공동발의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적용할 기준면적
규정

6.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위원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
고 건축 심의·의결시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해
당하는 사항 신설, 건축물심의대상면적 규정, 건축계획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



결의안

7.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용도 추가

8.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납부시 현금 납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응시자의 편리성 도모 및 응시수수료 반환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기

9. 충청남도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중 수입증지에 의한 방법폐지 등

1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3,810명을 4,070명으로 변경

1.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고남종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비수도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령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과 수도권 기업 활동 규제완화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 정책을 적극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지원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명성철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되었지만, 낮은 배·보상 결정과 국제기금의 이익의 소 제기에 따른 배·보상 지연 및 삼성의 미온적 태도로 유류피해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배·보상과 완벽한 환경복원, 지역 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와 유류피해의 가해 기업인 삼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



행정자치위원회

조례안 심의

|충남도 여성정책관 개방형직위 임용 삭제의결|

—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보기 어려우며 도청직원 사기 진작 우려 등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5월 15일(수) 11:00, 행자위의회의실에서 지난 회기시 보류한 바 있는 여성정책관 개방형직위 및 감사위원장 직급조정 관련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여성정책관의 직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만큼 전문적인 직위라고 볼 수 없으며, 개방형직위로 인한 도청직원의 승진기회 감소와 특히 소수 여성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정책관의 개방형직위 부분은 삭제의결했다.

또한 태안지역 소방서 신설과 도내 취약지역 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 소방정대 증설을 위한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관련 기구 정원조례는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했다.

현장방문

|안면도 관광지개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우선|

—충남도의회, 현장 방문지에서 의견제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유재산매각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철민 의원(태안)은 '현재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상존해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구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서해안유류피해 주민들의 보상과 관련 지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자본 유치에 네치레나 무산된 이유와 에머슨퍼시픽 지분이 당초 45%에서 60%로 강화된 사유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용필 의원(비례)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개발사업 부지내 광업권설정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프로젝트를 보면 해수온천장, 콘도, 테마파크, 골프장 등 사업범위가 추상적으로 실제 주민들과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상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종문 의원(천안)** 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이득과 손실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인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이 당초 협상내용대로 사업추진을 못할 경우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 **맹정호 의원(서산)** 은 1조 5,0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충남도가 리스크에 대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대책을 마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 **유병돈 위원장(부여)** 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추진 내용이 해수온천장, 콘도, 테마파크, 골프장 등은 현 시점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보다 발전적인 사업내용으로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소개



유병돈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김홍장 의원



김정숙 의원



명성철 의원



강철민 의원



김용필 의원



김종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 조례안 심의

| 도민자살 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조례” 일부개정 |

- 청소년 연간 18명 자살, 노인 자살률은 道 전체의 절반 -
- 3년 연속 900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 -

- 자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마련 촉구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5월 15일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충남 자살자 수가 3년 연속 900명을 상회하고 청소년 자살자 수가 18명에 이르는 등 충남 자살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충청남도 자살 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 윤미숙 의원(천안)은 자살상담 방식과 자살 유가족 지원 현황에 대하여 묻고 자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은 자살은 사회적인 큰 이슈이며 특히 충남도가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 자살 취약계층인 청소년에 대한 집중관리와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전문가 및 종교단체 임원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석우 의원(공주)은 충남의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으로 자살예방 위원회에 각계각층 전문가 확보와 개최 횟수를 증가시켜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 이도규 의원(서산)은 자살예방센터 위탁계획에 대하여 묻고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우울증 환자 등 자살 위험자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 철자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 현안보고

| 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2015년 개청 |

- 충남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계획 점검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5월 21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이전 계획 현안 보고를 받았다.

현안보고에서 서우성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5년까지로 내포신도시 행정타운 내에 부지 13,225㎡와 총사업비 28,196백만원으로 청사이전에 완역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당초 계획인 2016년 보다 1년이 앞당겨진 2015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는 만큼 차질없는 준비로 청사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소개



☛ **조치연 의원(계룡)** 은 청사이전 관계로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이도규 의원(서산)** 은 청사이전 설계용역 계약방식에 대해 묻고 시행사(충청남도)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턴키방식은 지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 은 당초 건축 단가 283만원 대비 47만원이 감소된 236만원인 이유를 묻고 사업 산출기초 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석우 의원(공주)** 는 책임감리 비용이 도에서 직접시행할 때와 충남 개발공사에 위탁시행할 때 5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 이유를 물었다. 또한 최근에 타 지역에 발생한 살인진드기 현황을 묻고 충남에서는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예방 및 안전 방안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승 위원장



윤미숙 부위원장



윤석우 의원



조치연 의원



이도규 의원



박찬중 의원



유익환 의원



김장옥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현장방문

|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해법을 찾아라 |

— 서천 화력발전소, 경관작물재배지, 송림영농조합법인 현장점검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5월20일 서천군 서면에 소재한 화력발전소와 마서면에 소재한 경관작물 재배지등을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활용실태 등 관계자들과 토론을 갖고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 **조아환 의원(서천)**은 '겨울철 난방비 인상으로 농가 부담이 큰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활용하여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서천군과의 협의는 있는지'와 또한 '온배수를 활용하여 종묘와 양식장을 운영할 경우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력발전소와 서천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 **김홍열 의원(청양)**은 '화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하여 투자비

용 대비 효과는 어느정도인지와 투자에 따른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 **고남중 의원(예산)**은 '화력발전소 증설 시 주변 주민들이 반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졌다.

☞ **김득응 의원(천안)**은 '서해안 쪽은 화력발전소가 많고 동해안 쪽은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발전소에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하여 2014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부세수비율이 너무 적은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정도 세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 **송덕빈 의원(논산)**과 ☞ **이종화 의원(홍성)**은 '온배수를 양식장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시설투자 계획은 어느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도와 서천군과의 협의하고 있는지' 물었다

☞ **조길행 의원(공주)**은 '전력생산 후 발생하는 폐자재의 발생량은 어느 정도이고 슬러지의 오염발생 물질의 처리 방법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 공주통합RPC, 정안 2농공단지, 산수박마을 현장점검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5월21일에 공주시의 당면에 소재한 통합RPC 쌀조합 공동사업장과 정안 2농공단지, 산수박마을 방문하여 사업현황 및 기업체 애로사항과 운영 사례 등 관계자들과 토론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고남중 의원(예산)**은 '공주 통합RPC 공동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쌀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 '충남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내뿐 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제 브랜드산 쌀이 될 수 있도록 공주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송덕빈 의원(논산)**은 '통합RPC공동사업장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쌀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늘었는데 수익률이 떨어진



것을 보면 농가에 그만큼 소득이 분배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역 농가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이종화 의원(홍성)** 은 '농가에서 재배된 쌀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 농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 **조길행 의원(공주)** 은 공주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에 대하여 공주시와 농협이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쌀 판로 개척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김홍열 의원(청양)** 은 '정안 2농공단지에 조성된 부지의 높은 분양 단가로 수도권 기업에서 입주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주시와 서로 협의하여 기업에서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김득웅 의원(천안)** 은 '정안 2농공단지에 입주가 완료될 경우 고용효과와 지역 주민들의 채용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 '타 지역에서 이전하여 온 만큼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이종현 위원장(당진)** 은 공주 통합 RPC공동사업장에서 공주 전체 수매량을 수거하여 지역 농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소개



이종현 위원장



김홍열 부위원장



송덕빈 의원



이종화 의원



조이환 의원



고남종 의원



김득웅 의원



조길행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조례안 심사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민원 해소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권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하였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관통하는 1천㎡이하의 대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을 해제토록 하여 관통대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 하였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권처원 의원은 충청남도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던 것을 건축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 추세와 맞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이전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다. 또한 지난 4월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유병국 의원은 제3조 제9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약칭을 목적조항 이외에 사용토록 수정 심사하였다.

■ 현장방문

| 보령~안면 연육교 도로건설 현장방문 독려 |

— 바다 생태환경 등 철저한 피해 방지대책마련 주문 —

충청남도의회 이준우 의장과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5월21일 보령~안면 연육교





도로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해저터널 및 연육교 가설에 따른 바다 생태의 환경 변화와 어장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피해방지대책 등 현장활동을 펼쳤다.

☞ **권처원 의원(천안)** 은 안면도 유류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보령~안면 연육교 가설 공사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절실 한데도 총 공사기간 9년 중 착공 4년이 지난 현재까지 21%에 불과한 느슨한 공사 진행을 지적하고 도민의 통행편의와 감소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였다.

☞ **유병기 의원(부여)** 은 청정해역에서 해저터널과 교량공사를 하다보면 해양오염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인재 뿐 만아니라 천재지변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처리 대책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의원 소개



박문화 위원장



권처원 부위원장



김기영 의원



유기복 의원



이광열 의원



유병기 의원



김문권 의원



유병국 의원

◆ **김기영 의원(예산)** 은 사업노선이 해안의 연안을 통과하면서 어민들의 어장이 훼손되고 이를 생계로 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과 민원처리 현황을 질의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발생한 민원은 도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문권 의원(천안)** 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대형 SOC사업을 축소하고 복지예산 등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는데 이에 따라 본 사업은 물론이고 도내 국도 등 국가시행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보령~안면 연육교 도로건설은 안면도 유류피해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 **유기복 의원(홍성)** 은 해저터널 굴착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및 토사 등의 처리 과정을 질의하고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나 주변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친환경 공사를 주문하였다.

◆ **유병국 의원(천안)** 은 당초 전 구간을 연육교로 설치하여 관광효과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는데 일부 구간을 해저터널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바다 속 해저터널 연장 약 7.0km에 긴 거리를 자동차로 달리다 보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낄 수 있으니 LED조명 등으로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다.

◆ **이광열 의원(아산)** 은 해저터널은 바다 속 약 80m 깊이까지 굴착해서 들어 가다보니 진출입부의 구배가 5%정도의 급경사로 계획돼 있어 통행차량들이 위험성이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고 해저터널 내에서 교통 및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시 사고별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가 방문한 보령~안면 연육교 도로건설 사업은 보령 및 안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0. 12월에 터키방식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시작하여 2018



년까지 9년간 5,730억원 국비를 투입 14.1km의 3~4차로의 해저터널과 교량이 개통하면 태안과 보령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서해안 중심으로 보령항운영실태 현장점검 강행 |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 의원들은 전날 보령~안면 연육교 도로건설 현장에 이어 5월22일에 충청권 관문이자 서해 중부권의 물류 중심 항만인 대천 및 보령항을 방문하여 항만건설 계획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의정활동을 강행하였다. 연안항인 대천항 방문에서 김기영 의원(예산)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어선과 관공선 정박 현황, 연안여객의 항로를 질의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해 화물 및 여객 수송능력에 비해 부족한 화물 물동량과 여객수요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지방관리무역항인 보령항 방문에서 권처원 의원(천안)은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발전 계획부터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령항 운영을 주문하였다. 이어 유병기 의원(부여)도 지방관리무역항인 보령항에 대하여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발전계획부터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보령항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령항은 접안능력 2선석으로 연간 총물동량은 14,007천RT에 이르며, 항만발전 종합계획에 의하면 향후 2020년에는 접안능력을 20만DWT급 석탄부도 등 5선석이 증가된 7선석으로 연간 총물동량은 27,786천RT로 운영되어 서해 중부권 중심무역항으로 발전되고, 대천항은 화물과 여객을 담당하여 충청권 연안항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 조례안 심사

|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전환으로 정원 확보 기대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5월15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개 안에 대해 심사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교육전문직 260명이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산입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족한 교육전문직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 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한 응시수수료 면제 및 수입증지 폐지로 인한 수수료 결제방식을 전자결제 및 현금납입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응시수수료 면제 및 전자 문서 발급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이 주요내용이다.

☞ 이은철 위원장(교육)은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여 향후 교육청에서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전문직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정원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 명노희 의원(교육)은 교육전문직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예상되는 사기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교권강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석곤 의원(금산)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응시생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응시수수료를 면제 받으려면 각종 증명서 제출 등 절차가 불편하다며 간소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개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 현장방문

|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 |

- "자율형 사립고, 지자체 출연 교육시설" 현장방문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0~21일 전주 상산고등학교, 순창 옥천인재숙을 방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자율형 사립고 및 지자체 출연 교육시설 운영 현황과 우수인재 육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 이은철 위원장(교육)은 우수인재 육성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우수사례 등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하고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의원 소개



상산고등학교를 방문한 **☎ 조남권 부위원장(교육)**은 “현 이현구 교장(전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초빙한 이유에 대해 현직 교장의 소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 김석곤 의원(금산)은 “상산고등학교에서 수학 과목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으며,

☎ 이기철 의원(아산)은 “상산고등학교에서 각 분야의 명사, 석학들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 이진환 의원(천안)은 “양서 읽기와 연계한 토론, 논리적 사고력, 표현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했고,

☎ 명노희 의원(교육)은 “기숙형 방과 후 학습시설(옥천인재숙)의 학생 선발 기준과 운영형태”에 대해 질의했으며,

☎ 서형달 의원(서천)은 “옥천인재숙 수료생 대학 진학 현황과 우수인재 육성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은철 위원장



조남권 부위원장



이기철 의원



김지철 의원



서형달 의원



김석곤 의원



이진환 의원



명노희 의원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류특위사업관련 국비지원 촉구

5. 13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해안유류사고 관련 피해배상 현황 점검 및 피해민 의견청취를 위해 보령을 방문했다. 최근 서해안유류사고 관련 특별법이 국회 통과한 가운데 유류사고피해민 연합회원들은 관련 시행령에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에서 마련한 피해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피해민대표들의 의견을 관심있게 경청했다.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특위 김태홍 의원도 함께 참석한 이 자리에서,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보령)은 “유류사고 발생 후 6년동안 4천여명의 피해민들이 재판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류피해관련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대하여 윤장관은 “유류사고피해민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각종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민의 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명성철 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



강철민 의원



김홍장 의원



유익환 의원



이종현 의원



서형달 의원



유기복 의원



이도규 의원



이종화 의원



조이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윤리강령 성실하게 준수 다짐

충청남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옥)는 5월 15일 회의를 열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위남용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원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 **김장옥 위원장(비례)**은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윤리특위가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이에 관련된 세부규정의 정비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윤리특위 위원들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병기 의원(부여)**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의원들의 행동 가집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의원들은 평소 품위유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 **김종문 의원(천안)**은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윤리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원 상호간의 존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의원 모두가 도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자'고 다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소개



김장옥 위원장



이광열 부위원장



유병기 의원



고남중 의원



김석곤 의원



조치연 의원



김종문 의원



김지철 의원



이도규 의원

연구모임

연락처

구분	성명	소속
대표	권처원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김재갑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회원	유병기	건설소방위원회
회원	김문권	건설소방위원회
회원	유병국	건설소방위원회
회원	이광열	건설소방위원회
회원	허재영	대전대학교(토목공학과)
회원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회원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세종시회
회원	박상희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충청남도의회,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모색

● 도의원과 건설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모임 창립

충청남도의회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권처원 의원)은 건설 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의원과 건설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오는 6월 중 충남건설경기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7월중에 2차 정기모임에서 문제점을 조사 분석한 후, 10월 중 건설전문가, 교수 등의 합동 토론회를 거쳐 11월 중에 보고서를 발간·배포하기 결정했다. 권처원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다른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건설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연구모임명 |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 대표자 | 김종문 의원

| 연구목적 | 충남도 지자체 및 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고용개선을 위한 전략 및 계획 수립

| 구성원(10명) |

구분	성명	소속
대표	김종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간사	임춘근	예산전자공고 교사
회원	김홍장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회원	맹정호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회원	김득응	농수산경제위원회 의원
회원	김지철	교육위원회 의원
회원	하태현	민주노총 대전충남 법률원 공인노무사
회원	진영하	민주노총 충남지역노조 비정규국장
회원	전말봉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 조직국장
회원	이상문	청양군 비정규직 대표 (청양군 환경사업소)
회원	민지현	학교비정규직 영양사 대표 (예산여중)
관계자	안상만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담당사무관
관계자	김낙현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실 담당사무관
관계자	김현기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무관

충청남도의회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 타시도 벤치마킹

● 타시도 호봉제 확대 시행, 교육감직접고용조례 제정으로 고용안정에 기여

● 충청도 · 교육청, 비정규직 전담부서 일원화해야

충청남도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연구모임은 충남지역 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1만 7천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5월 28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도의회 연구모임은 타시도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6~7일 전북교육청, 광주교육청, 광주시, 광산구청을 방문한데 이어 두 번째 현장방문에는 연구회 대표 김종문 의원을 비롯해 김득응 의원, 김지철 의원, 김홍장 의원, 맹정호 의원과 현장 전문가 임춘근 교사, 하태연 공인노무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이 6개 기관을 방문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연구모임

광산구청의 경우 정규직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신설과 직종단일화, 호봉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 판단되면 과감하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전북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통폐합 등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 타 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학교장 채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과 중앙단위 단체교섭 일원화 등으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연구모임은 방문 기관으로부터 비정규직의 고용실태를 청취한 뒤 호봉제 실시와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연구하는 의회상을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김종문 의원은 "6개 기관 모두가 사무관을 팀장으로 5명 이내의 비정규직 전문팀을 구성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 역시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비정규직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모임은 타시도 기관방문에 이어, 비정규직 고용현황 자료 분석을 토대로 7월에 두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올 9월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를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포문화권 연구회 모임 개최

● 정제된 내포 문화 연구의 첫걸음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중 하나인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연구회 연구모임"이 새로운 내포시대를 맞이하는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내포연구 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날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종화(홍성) 의원)은 도의원과 내포관련 전문연구원, 학계교수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자의 역할을 분



의원연구모임명단

| 연구모임명 | 충청남도의회 내포문화권연구회

| 대표자 | 이종화

| 연구목적 | 내포문화권 정체성에 관한 연구

| 구성원(10명) |

구분	성명	소속
대표	이종화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강종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회원	김기영	건설소방위원회 (특위)
회원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원	유익환	문화복지위원회
회원	명성철	행정자치위원회 (특위)
회원	조이환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원	박태신	내포지방고대문화연구소
회원	권성하	대전일보
회원	김경수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담하여 자료수집과 현장탐방 등을 통하여 내포의 정체성을 찾아가서 다양한 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한 내포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을 고증하고 충남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화(충성)의원은 내포문화권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고 발굴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발족된 만큼 내포문화의 중요성과 발굴이 정체되어 있는 내포문화 연구의 첫걸음이라며 말하고 연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 활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회의에서 내포문화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콘텐츠 개발의 부진함과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한 국비확보가 늦어져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의하고 향후 내포연구모임에서 주력하여야 할 사안임을 어필하였으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한 전체 추진사항도 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내포문화권 연구모임은 향후 내포문화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내포관련 현장답사를 7월중에 실시하고 워크숍 개최 등 내포문화권 연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포토의정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36회 자직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별관 남측정원 맑은숲길에서 상징기준점 제막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일행이 김용필의원(비례)의 안내로 의회 산청사를 견학하였다.



제12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201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05월
24일

3농혁신대학(임산물 소득증대 과정)



05월
25일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가족사랑, 가족행복, 축제를



05월
25일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가족사랑, 가족행복, 축제'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하였다.



05월
27일

도청이전자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건의 관련 강창희국회의장 방문

의회사무처 소식

구삼회 의회사무처장의 직원들에게 띄우는 메시지~



6월을 맞이하며...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바다는 언제 보아도 무심 쾌활하지요. 바다는 슬픈 기억일랑 간직하지 않는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활기치게 한답니다.

만약 바다가 그 자신의 가슴을 가로지르던 수 많은 배들이 남긴 흔적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녀의 얼굴은 온통 주름살투성이가 되었을 테지요. 바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리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거랍니다.

6월이 찾아오네요. 우리 조직이 맞는 6월은 무심 쾌활하고, 활기차고,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 젊음을 유지하는 바다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에서의 6월에 필요한 것은 당신의 웃음 소리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화합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더불어 다방면에서 우리 조직의 끈끈한 저력을 보여 주어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조직의 화합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은 물론, 우리 조직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충청남도 의회도 모두모두 한마음으로...



5.25일 충청남도청 인근 잔디광장에서 열린 "충남 도청 가족 화합 한마당" 행사에서 의회사무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내포시대 개막이후 전직원이 참여하는 이날 행사에는 도 본청, 의회 및 사업소를 포함한 모든직원 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뜨겁고 무더운 날씨에도 의회사무처 직원을 물론 의원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임하였다.

① 3인4각 경기 - 셋이서 한마음으로 영차영차 달려요.

② 단체줄넘기에서 의회는 2등 했어요

- 마치 공중부양하는 것 같은 순간 포착

③ 실국별 장기자랑에서 의회는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 짜라빠빠~~ 짜짜라 짜라빠빠~~

④ 의원님도 함께하는 댄스배틀.

의원님도 직원들도 한마음으로 으라차차



의회사무처 농촌일손돕기

2013년 6월 12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명은 홍성군 홍북면 딸기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이날 직원들은 비

가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팔을 걷어부치고 딸기하우스에서 열심히 작업하였다.



충청남도의회 청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2013년 월 26일 부터 5월 30일까지 충청남도의회 청사를 방문하신 분들입니다.
도의회 청사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04월
26일

당진 송악e편한세상노인회 일행 의회신청사 견학



04월
26일

중국 관광협회 및 여행사 관계자 의회청사 견학



04월
29일

서산시 지곡면주민 의회신청사 견학



05월
06일

예산읍 前의용소방대원 소방동우회 의회신청사 견학



05월
07일

공주 화월리 주민일행 의회신청사 견학



05월
09일

논산 노성면 두사리 주민일행 의회청사 방문



05월
10일

태안 근흥면 농협산악회 의회신청사 방문



05월
13일

홍성군 6.25참전용사 의회신청사 방문



05월
27일

논산시 부적면노인회 의회청사 방문



05월
28일

보령시 소속 공무원 도의회 청사 방문



05월
30일

고향사랑 모니터단(중앙부처 소속)일행이 도의회 신청사를 견학



05월
30일

아산시 온천4동 주민자치위원회 의회청사 방문

7월에 열리는 즐거운 축제



보령머드축제

7월 19일~7월 28일(10일간) |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



고마나루축제

7월 20일~8월 11일(매주 토·일요일중 8회) | 금강웅진공원 수상무대



제11회 부여서동연꽃축제

7월 18일~7월 21일(4일간) | 서동공원 일원



춘장대 여름문화예술축제

7월 27일~7월 28일(2일간) | 춘장대해수욕장 광장 특설무대

충남도청 문예회관 공연안내



+ 신명나는 놀이마당「축원」

- 날짜: 2013. 07. 10(수) 19:00
- 장소: 충남도청문예회관
- 관람료: 무료(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가능)
 - 입장권 예매는 충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가능
 - 입장권은 당일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좌석권 교환(선착순 교환으로, 늦게 오실 경우 좌석이 없을 수도 있음)
- 공연문의: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041-635-3817

+ 인순이와 함께하는「꿈의 무대」

- 날짜: 2013. 07. 24(수) 19:00(1회 공연)
- 장소: 충남도청문예회관
- 예매: 충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가능 (7월 15일(월) 9시~7월 23일(화) 17시)

모바일세상 속 충남도 의회

+ 충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가 새단장을 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의회 모바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생중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 접근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PC버전에서 볼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만나는 충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많이 방문해 주세요.

+ 접속방법

- 1 스마트폰 브라우저에 URL주소(council.chungnam.go.kr) 입력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설치)
- 2 안드로이드 마켓에 "충청남도의회" 검색 후 앱 설치
- 3 PC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충청남도의회" 검색하여 앱 설치(내폰으로 보내기)
- 4 PC버전 홈페이지 하단에 QR코드 스캔



충남도의회 모바일 홈페이지 소개



의장인사말, 의회구성 및 조직, 전화번호, 찾아오시는 길



공지사항, 보도자료, 입법예고, 위원회활동



연간회기일정 및
일자별 회의일정



현역의원 및
역대의원 정보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진자료



업무보고, 연구모임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
의회소식지



의안소개, 검색, 통계정보



회의록 열람



의회 회의상황을 실시간
LIVE 및 녹화영상 중계
의회소식지



의원5분발언, 도정질문
등 홍보영상 vod서비스



의회에 바라는
사항 등록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를 클릭하세요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